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1차
- 인문계열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5

■ 유의 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 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의 상황을 [나]~[라]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마]~[사]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2013년 2월의 일본 도쿄. “조선인을 없애는 일은 해충 구제와 같다”, “죽여라, 죽여, 조선인!” 한국 음식점과 한류 가게가 밀집해 있는 신오쿠보 한인타운에 재특회의 혐한시위대가 무시무시한 팻말을 들고 몰려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즈음 “차별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든 또 다른 시위대가 이 혐한시위대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차별 시위에 반대 서명을 받는 시민들,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눠주는 시민들, 혐한시위대를 향해 춤을 추며 조롱하는 시민들, 어느 순간 이 대항시위대가 혐한시위대를 압도했다.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다. 혐한시위가 있을 때마다 대항시위대가 맹활약을 했다. 주저앉아 혐한시위대를 막기도 했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했다. 2013년 9월 22일에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차별철폐 도쿄 대행진’에 나섰다.

- 『말이 칼이 될 때』

[나] 심리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노한 여성 사진과 곱셈 문제를 통해 확인된, 두 가지 사고 모드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 둘에 여러 이름을 붙였다. 나는 키스 스타노비치(Keith Stanovich)와 리처드 웨스트(Richard West)가 최초로 제안한 용어를 수용해 머릿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부르겠다.

- 시스템 1: 거의 혹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발적인 통제에 대한 감각 없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한다.
- 시스템 2: 복잡한 계산을 포함해서 관심이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관심을 할당한다. 활동 주제, 선택, 집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작용하는 경우도 잦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모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성화된다. 시스템 1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시스템 2는 편안한 보통 상태에서는 별 노력을 요하지 않고 역량의 일부만 가동한다. 시스템 1은 시스템 2를 위해서 인상, 직관, 의도, 느낌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시스템 2의 승인을 받으면 인상과 직관은 믿음으로 바뀌고, 충동은 자발적 행위로 변한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시스템 2는 거의 혹은 전혀 수정 없이 시스템 1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낀 인상을 믿고, 자신의 바람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양호하다.

그러나 시스템 1이 어려움에 빠지면 시스템 2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처리 지원을 요청한다. 시스템 1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시스템 2가 가동된다. 갑자기 17×24 같은 곱셈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러하다. 또한 시스템 1이 유지하는 세상의 모델을 위배하는 특정 사건이 감지되면 시스템 2가 활성화된다. 놀랄 때마다 의식적으로 집중력이 극대화하는 경험은 다들 해봤을 것이다.

- 『생각에 관한 생각』

[다] 1952년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스위스모어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몇몇 지원자들이 인간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다.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Solomon Asch)는 단순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커다란 카드를 준비했는데, 한 카드에는 세로로 직선 하나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비슷한 직선 셋이 그려져 있다. 지원자에게 두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세 줄 중에 어떤 줄이 다른 카드에 그려진 한 줄과 길이가 같은지 질문한다. 세 줄이 그려진 카드에서 다른 두 줄은 길이가 크게 달라서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속임수를 두었다.

‘지원자’ 중에는 애시와 미리 짜고 들어온 가짜들이 섞여 있었다. 애시는 실험에서 가짜 지원자들이 줄지어 나와서 하나같이 아주 큰 목소리로 답을 말하게 한 다음에 진짜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때때로 애시는 가짜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하게 한 다음에 진짜 지원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은 대조 실험에서는 틀린 답을 말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쉽게 바른 줄을 찾아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조리 틀린 답을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는, 지원자가 다수와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하는 때가 많았다. 그들은 주저하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눈을 비비고 카드를 노려보다가 자기가 알아본 것을 포기하고 다수를 따랐다. 몇몇 사람들이 소리 내어 틀린 답을 말하기만 해도 멀쩡한 사람에게 틀린 답을 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원자』

[라] 구체적 사례, 그러니까 노예제에 대한 논증을 살펴봅시다. … 내가 노예 소유주고 당신은 노예제에 반대합니다. 내가 노예제를 지지하는 이런 논증을 합니다. “가령 당신이 차를 임대하고 나는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차를 더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차에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차를 더 잘 관리한다. 당신은 차를 잘 돌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차에서 소음이 나면 당신은 허츠 렌터카 회사에다 차를 돌려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차를 소유한 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두려워 자동차 정비 센터를 찾아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차를 소유한 나는 차를 임대한 당신보다 더 많이 차에 신경 쓴다. 이야기의 각도를 약간 바꿔서 나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은 임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더 잘 돌볼까? 논리의 등가성에 비추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돌볼 것이다. 따라서 노예제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도덕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노예제는 사람을 소유하는 제도고 그래서 소유주는 노예를 훨씬 잘 돌본다. 자유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사람을 빌리는 제도다. 만약 당신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은 빌리면 되고, 그런 만큼 사람에게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노동의 자유시장은 완전히 부도덕한 반면, 노예제는 상당히 도덕적이다.

노예 소유주는 이런 도덕적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당히 괴상하다고 여길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괴상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걸 괴상하다고 판단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예 소유주가 공통적인 도덕적 터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도덕적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이해하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선악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 『츨스키, 사상의 향연』

[마] 삶은 정치적이다. 세상이 우리의 기분을 살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선택들은 그 자체로 일종의 투표 행위다.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장래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일상의 정치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또는 말과 행동의 부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20세기 몇몇 극단적인 (그리고 덜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부농(富農)은 선전 포스터에서 돼지로 그려졌다. 인격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미지는 농촌이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분명히 도살을 암시한다. 때는 1930년대 초로, 당시에 소련은 시골을 장악하고 그 자분을 뽑아내 단기 집중 산업화에 투입하려고 했다. 남들보다 땅이나 가축을 더 많이 가진 농민이 가장 먼저 재산을 잃었다. 돼지로 묘사된 이웃의 땅을 빼앗는 데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다. …

… 독일에서는 나치가 권력을 잡았다. 승리를 만끽한 나치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불매 운동을 조직했다. 처음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가게에는 <유대인>이라고, 또 어떤 가게에는 <아리아인>이라고 유리창과 벽에 표시를 하자, 독일인들의 가정 경제학에 관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대인>이라고 쓰인 가게에는 미래가 없었다. 그러한 가게는 탐욕스러운 음모의 대상이 되었다. 재산에 종족이 표시되면서, 시기심이 윤리를 바꿔 놓았다. … 가게에 <유대인>이라고 쓴 독일인들은 실제로 유대인의 소멸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멀뚱히 서서 지켜보기만 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표시를 도시 풍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미 끔찍한 미래와 타협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충성의 상징을 드러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러한 상징이 동료 시민을 배척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라.

- 『폭정』

[바]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그에 따라 가치의 충돌로 인한 갈등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담론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담론 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담론을 통해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범에 합의할 수 있고, 그 도덕규범에 따라 윤리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윤리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경제 체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시민의 의사를 공적인 의사 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소통을 위한 체계적 절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사] 사르트르는 키르케고르와 달리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할 정해진 목적이 없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라고 말한다. 미리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실존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즉, 인간은 자신이 원하건 원치 않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로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이러한 실존의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킨다.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사르트르는 이것을 불성실이라고 보았다. 불성실은 자유와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기존의 관습, 고정된 법칙이나 원리, 또는 신과 같은 존재에게 순응하는 자세이다. 그래서 그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강조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실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실천 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이해하고 통합적, 추상적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지문에 대한 지엽적 이해 지향

2. 문항해설

- [가] 홍성수(2018), 『말이 같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17면.
혐한시위대와 그에 대한 대항시위대의 활동 제시
- [나] 대니얼 카너먼 지음, 이진원 옮김(2012),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33면, 39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운용됨. 시스템 1은 자동적이며, 시스템 2는 노력이 요구됨. 시스템 1이 우선하며, 시스템 1이 곤란에 처하면 시스템 2가 작동함.
- [다] 마크 뷰캐넌 지음, 김희봉 옮김(2010), 『사회적 원자: 세상만사를 명쾌하게 해명하는 사회 물리학의 세계』, 사이언스북스, 127면~128면.
사회 심리학의 실험 소개. 사람은 올바른 답을 알지라도 남들이 틀린 답을 선택하면 그러한 선택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
- [라] 노엄 촘스키 지음, C. P. 오테로 엮음, 이종인 옮김(2007), 『촘스키, 사상의 향연: 언어와 교육 그리고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시대의창, 730면~731면.
노예제에 대한 도덕적 논증 소개. 이 논증을 도덕적 터전에 입각하여 비판
- [마]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조행복 옮김(2017), 『폭정』, 열린책들, 43면~45면.
일상의 정치에서 말과 행동의 중요성 강조. 선전 포스터, 표시 등으로 예시된 상징에 대한 경고
- [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90면
담론 윤리의 내용 및 그 필요성 소개
- [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152면~153면.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소개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가]에 제시된 상황을 [나]~[라]를 활용해 분석하였는가?
 - 시위대의 행동을 [나]의 시스템 1, 시스템 2와 관련지어 분석하였는가?
 - 시위대의 행동을 [다]의 사회 심리학 실험 내용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는가?
 - 시위대의 행동을 [라]의 도덕적 논증 및 도덕적 터전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는가?
- [가]에 제시된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마]~[사]를 활용해 논하였는가?
 - 시위대 참여, 시위대 평가 등에서 [마]의 일상 정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는가?
 -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의 담론 윤리가 필요함을 논하였는가?
 - 시위대 참여, 시위대 평가 등에서 [사]의 자유, 선택, 책임이 중요함을 논하였는가?

[유의사항]

- [가]의 혐한시위대와 대항시위대를 동등하게 간주하고 논술하지는 않았는가?
[나]~[라]를 통해 혐한시위대의 시위가 부당함을 판단할 수 있음.
- 제시문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논술하지는 않았는가?
[사]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을 강조하면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기울 수 있으나 여타의 제시문을 고루 고려하면 상대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기는 어려움.

4. 예시답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 그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서 충돌하기도 한다. [가]에서 제시한 혐한시위대와 대항시위대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이 두 시위대는 조선인과 한국, 한류에 대해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가지고 갈등하였으며,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며 대항시위대가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가]의 상황은 [나]~[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두 시위대 간 지속적 갈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1과 노력을 동원한 시스템 2를 통해 각자의 견해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별이라는 잘못된 판단과 행위도, 다수가 거기에 동참하면, 개인이 거기에 따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바, 이로 인해 혐한시위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혐한시위대는 도덕적 논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터전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권을 지지하는 도덕적 터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논증에 더해 도덕적 터전까지를 갖추면 대항시위대의 입장이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의 상황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마]~[사]를 고려하면, 우선, 일상의 정치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동료 시민을 배척하는 말과 행동, 예를 들어 혐한시위대의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 담론 윤리를 토대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론 윤리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므로 차별을 조장하는 견해를 따르는 혐한시위대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이로써 갈등 상황은 해소될 것이다. 끝으로, 나의 자유, 선택, 책임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 선택, 책임이 확고해지면, 차별은 종식될 것이다. 차별에 따른 피해와 책임을 인식하면, 차별을 경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